

‘인생은 아름다워’ 재개봉 영화 열풍 이어간다



인생은 아름다워

아카데미 3개 부문 수상작 ... ‘비포 선라이즈’와 함께 4월 재개봉 흥행몰이 나서

‘내 인생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개봉 영화 열풍이 불고 있다. 2015년 최고 히트작은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이터널 선샤인’이었다. 2003년 개봉 당시 17만명을 동원했던 ‘이터널 선샤인’은 무려 49만여명을 동원하며 대박을 터트렸다. 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15만 9000명),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5만 7000명) 등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올해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웅본색’, ‘쇼생크 탈출’ 등이 이미 관객들 만났고 다양한 라인업이 대기 중이다. 4월 개봉작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5~6월 ‘블루’ ‘화이트’ ‘레드’ ‘베로니카의 이중생활’도 관객들 만날 준비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인생은 아름다워’는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다. 제7회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감독까지 맡은 주연 배우 로베르토 베니니가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외국어영화상, 음악상도 거머쥐었다. 또 제51회 칸영화제에서도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1999년 개봉 당시 서울에서만 22만명을 동원했다.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주연한 영화 ‘비포 선라이즈’는 ‘멜로 영화’의 정석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국내 개봉 20주년을 기념해 다시 관객들과 만나는 ‘비포 선라이즈’는 파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셀린과 비엔나로 가는 제시가 우연히 기차에서 만나 보내는 ‘하루’를 그리고 있다. 리처드 링클레어 감독은 이후 ‘비포 셋’(2004), ‘비포 미드나잇’(2013)을 9년 간격으로 제작했다.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배우들의 모습과 그 세월이 따라 변해가는 사랑의 의미 등이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팬들에게 ‘비포 3부작’으로 불리며 사랑을 받았다.

5~6월 중에는 크지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3부작 ‘세 가지 색 : 블루 화이트(평등), 레드’(박애) 3편 연작은 프랑스 국가의 삼색을 상징한다. ‘블루’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화이트’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았고, ‘레드’는 1995년 아카데미 감독상에 노미네이트 됐다. ‘블루’의 줄리엣 비노쉬, ‘레드’의 이렌느 야곱 등 여배우들 모습도 인상적이다. 크지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또 다른 역작 ‘베로니카의 이중생활’(1991)도 관객들을 만난다. 한 날 한 시에 프랑스와 폴란드라는 서로 다른 공간,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똑같은 모습의 두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일본 도쿄의 변화가 미나토구 롯본기(六本木)에 가면 모리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한 곳에 동지들 미술관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이라는 근사한 별명을 지녔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초고층빌딩(모리타워) 54층의 53층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접근성에서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색다른 입지와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파격적인 발상으로 개관 10여 년 만에 도쿄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모리미술관은 왜 250m의 높은 상공에, 그것도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도쿄 심장부에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견학이 큰 몫을 했다. 관광객들을 최전선에서 만나는 택시기사와 ‘호텔리어’에게 모리미술관을 알려 도쿄관광코스에 끼여넣도록 하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구전(口碑)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래서일까. 2년 전 모리미술관으로 기자를 데려다 준 택시기사는 마치 모리 미술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 같았다. 미술관의 역사에서부터 대표적인 프로그램까지 줄줄이 꿰고 있었던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택시기사 덕분에 모리 미술관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도쿄 시민들에게 모리 미술관이 어

모리미술관의 택시기사

‘입주’하게 됐을까. 다음 아닌 쇠락한 구도심을 문화로 되살리는 ‘롯데 힐스 프로젝트’ 때문이다. 부동산 재벌로 잘 알려진 모리그룹은 1980년 대 말 ‘문화도시의 허브’를 구현할 구심체로 문화·주상·업무·쇼핑의 롯본기 힐스를 추켜들었다. 하지만 모리그룹의 ‘거사’(巨事)는 타이밍을 찾지 못해 한동안 책상 서랍 속에 방치됐다. 일본의 ‘도시계획 특별법’(2002년 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롯본기 재개발에 필요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데 17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지난 2003년 문을 연 모리미술관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약 국제 미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초고층 전망대와 입장권을 묶은 패키지 250만 원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특히 직장인들을 겨냥해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개장과 택시기사와

편 존재인지 가능해 볼 수 있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온 지인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건넸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이인 문화전당에 도착하기까지 운전기사 “(문화전당은) 돈만 축내는 광주의 애물단지”라며 험담(?)을 늘어놓더라. 지역사정에 어두운 지인은 택시기사에게 불평을 듣고 잠시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명색이 국립문화시설인데 자부심은커녕 왜 눈엣가시 일까..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주변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 물론 문화전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려면 콘서트 등의 변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모리미술관의 힘은 ‘야간 미술관’과 택시기사들을 구전 마케팅으로 활용한 역할상이었다. 생각을 바꾸면 도시가 바뀐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기억을 매개로 한 문화의 다양한 측면 들여다보기

‘문학들’ 봄호 나왔다

인간에게 기억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재발견되는 어떤 것이다. 때로 기억은 결코 있어버리면 안 될 무엇처럼 끊임없이 상품으로 만들어져 소비된다. 자본과 권력이 우리의 몸이나 생각에 스며들며 기억을 다루는 방법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대표 문예지 ‘문학들’(봄호·통권 43호)이 ‘향수(鄉愁) 산업의 정치적 무의식’을 특징으로 기억을 매개로 한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보았다. 전문가들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거나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기억을 통해 대중의 무의식을 장악하려는 음모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경주 조선대 영문과 교수는 ‘덕수와 덕선이 남긴 것-뒤틀린 공동체의 향수’를 주제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의 정치적 무의식을 섬세하게 분석한다. 임 교수는 영화 ‘국제시장’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조명하면서 “머지않아 한국 현대사는 ‘국제시장’과 ‘응답하라 1988’을 기록할지도 모르겠다”며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기억투쟁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해란 전남대 영문과 교수는 ‘향수 산업과 국가 이미지의 재구성-영국 ‘헤리티지 영화’의 경우’에서 향수를 산업화한 영국의 헤리티지 영화를 사례로 들며 기억의 상품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읽어낸다. 이 박사는 향수 산업을 단지 부정적인 관점으로

요약하지 않고 우리가 왜 그런 향수에 깊게 매혹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작가들의 문학사’에서는 서준환 작가가 ‘자극이 개인적인 한국소설사’를 주제로 김동인, 김성환, 송영의 소설을 문학적 원형으로 삼게 된 계기 등을 풀어낸다. 사물들에서는 황인찬 시인이 ‘공원들, 단상들, 공원의 좋은 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기억이 남겨진 공간으로서의 공간을 탐색한다. 이밖에 책에는 김경인, 석연경, 심진숙, 열광권 시인 등의 시들과 박송아, 오현중, 이원화, 천희란 소설가의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박성진기자 skypark@



‘제25기 해양문화 아카데미’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오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매주 화요일)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 보는 ‘제25기 해양문화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올해는 해양왕국 위세를 자랑했던 고려 이야기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생하게 들려준다. ▲후백제와 견훤의 해상활동 ▲고려 건국과 왕건의 해상세력 ▲고려 조준제 등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는 해양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6일까지 전화(061-270-2045~7)로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홈페이지(www.seamuse.go.kr) 참조. /김용희기자 kimyh@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응답하라! 연극부’ 운영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황수주)는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극·영상프로그램 ‘응답하라! 연극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6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소속 임근영 연극예술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놀이를 통

해 자연스럽게 연극에 참여할 수 있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상황극으로 재밌게 표현하기, 영상촬영 및 편집활동, 연극관람, 1박 2일 체험캠프 등이다. 상반기 15회(4월~7월), 하반기 15회(9월~12월)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68-13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커피숍 상가 4층 건물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50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만)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율리 천원역 전방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서구 쌍촌동 대우파크빌 (별과 원룸)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1억 1천만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광산구 월계동 참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8천 500만	□ 매가 1억 5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55평) 2층 - 전방 좋음, 주변 골목상,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7천 500만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1. 북구 매곡동 (토 223평, 건 381평) (근린시설) ◆ 광주정읍고등학교 인근 (아파트) 상권 유동 많음 ◆ 매곡동 호반 2차 아파트 전방 인근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대출 50%가능 (실 투자 : 3억) 감정가 12억 - 최저가 12억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 주택) ① 북구 중흥동 (토 72평, 건 36평) ◆ 중흥3동주민센터 부근, 2~3m 포장도로 접 감정가 1억3천8백 - 최저가 1억3천8백 ② 동구 산수동 (토 42평, 건 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다용도실 약 6평 별도있음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8백만
2. 광산구 운남동 (토 70평, 건 186평) (근린주택) ◆ 1층 상가 (마트) 2층 주택 ◆ 광주 운남동 우체국 부근 (코너자리)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①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3.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숙박시설) ◆ 1층~5층 총 37개, 운전역 3분거리 ◆ 달방 수익 약 800만 가능 ◆ 대출 약 70%가능 (실투자 2억) 감정가 12억 2천 - 최저가 9억5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② 동구 중정동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익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4. 서구 화정동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터미널 부근 투지 가치 추천)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2억	(토지 추천) ①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8백 - 최저가 1억8천
5.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8백 - 최저가 1억8천	② 서구 세하동 (198평) ◆ 세하마을 주변 위치, 주위는 주택 및 전답 한해 ◆ 동건 차량 접근 가능, 3m 포장도로 접 ◆ 법정 지상권 성립 감정가 1억9천2백 - 최저가 1억9천2백

010-6832-9700

경매교육

경매 이해는 대충하시라!!!

바로실천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